

제14회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생동'

집행위원회, 기자간담회 가져... 9월 22일~10월 22일 개최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집행위원회(위원장 윤점용)는 14일 전주 관내 음식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오는 9월 22일부터 10월 22일까지 한달간 개최되는 '제14회 2023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행사는 전주한지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9월 22일 오후 2시 30분 개막식을 시작으로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전북예술회관 등 도내 일원에서 펼쳐진다.

전북도가 주최하고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이 행사는 전시, 국제학술대회, 특별전, 체험프로그램, 부대행사 등 6개 부문 38개로 이뤄졌다. 올해는 한글날과 연계해 진행되는데, '생동'이라는 주제하에 20여국 3,200여 명의 작가가 참여할 예정이다. 특히 1,000명의 작가들이 민족의 의지와 희노애락이 담긴 노랫말과 한글 시를 천년의 한지

에 한글서예로 표현한 1,000개의 소품들을 하나의 대형 작품으로 구현해 보는 한글 천인천시와, 한국에 상주하고 있는 외교 공관의 주한 대사들의 작품을 초청해 각 나라를 대표하는 문자와 명구들을 전시해 세계문자의 다양성과 서예를 세계에 알리고자 기획한 주한외교사절 초청서예전이 주목을 끌고 있다. 한편 연계 행사로 김암서예관에서 안중근이 남긴 여록, 유묵 그리고 그의 사상을 소재로 한국서단의 청년작가들이 그 의미를 재해석하고 확장시켜 보는 '청년, 안중근을 만나다' 전도 마련됐다. /정은성 기자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서현석 대표와 부안군 권익현 군수를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3일 '2023 전북 문화예술 증진을 위한 악기 기증식'이 열렸다.

전북 문화예술 증진 위한 악기 기증식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부안군에 오케스트라 악기 50여점 무상 기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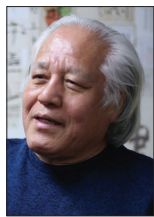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은 부안군에 전당이 보유하고 있는 오케스트라 악기 50여 점(약 3000만원 상당)을 무상으로 기증했다고 전했다. 지난 13일 열린 '2023 전북 문화예술 증진을 위한 악기 기증식'에는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서현석 대표와 부안군 권익현 군수를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에 따르면 이날 전당이 부안군에 기증한 오케스트라 악기는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베이스, 플루트, 클라리넷, 호른, 트럼펫, 타악기 등 총 50여 점으로, 현재 부안예술회관이 보유하고 있는 노후된 악기를 대체함으로써 수업의 만족도를 높이고, 단원들의 기량을 향상시켜 부안예술회관의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지역거점기관이 주관하는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은 한국형 '벨 시스템'

를 목표로 미래의 성장동력인 어린이와 청소년, 예비 음악가들의 성장을 돕는 프로그램으로, 군 단위로는 부안예술회관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참여했다. 권익현 군수는 "악기를 배우고 싶은 취약계층 아동·청소년들의 꿈을 응원하는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측에 감사하다"며 "음악꿈나무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꿈을 키우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서현석 대표는 "이번 오케스트라 악기 기증식은 전북도민들의 행복한 문화여가생활을 지향하는 전당과 지역민들의 문화복지 향상을 추구하는 부안군이 함께 뜻을 모아 추진한 문화예술 나눔 프로젝트"라며 "앞으로도 전당은 전북문화예술 활성화와 문화생활 향유를 통한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현초 이호영 서예가 '서여기인전' 고향 무주서 개최

무주예술창작스튜디오 칠연미술관에서 6월 30일까지 작품 70여점 전시

무주예술창작스튜디오에서 현초 이호영 서예가(사진)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서여기인전(書如其人展)'이 진행 중이다. 6월 30일까지로 무주군 안성면 소재 무주예술창작스튜디오 칠연미술관에서 '너를 기다리는 동안' 등 작품 70여 점이 전시된다. 이호영 서예가는 '이번 전시회는 고향(무주군 안성면)에서 제작된 소품 위주의 작품들을 전시해 개인적으로도 의미가 크다'라며 '질박한 속에 드러나는 서(書)의 기운(氣韻)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다'라고 전했다. 무주군 안성면이 고향인 이호영 서예가는



원광대학교 사범대학교 미술교육학과를 졸업하고 MBC문화센터, 서예강사, 한국서예협회 초대작가를 거쳐 서울 인사동과 청담동 미술관과 명동 평화화랑, 예술의 전당 개인전 및 그룹전시회에 작품을 내거는 등 활발히 활동하며 서예가로서 이력을 쌓아왔으며 지난 2018년 3월부터 무주 예술창작스튜디오에 동지를 들고 작품 및 전시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한편, 무주예술창작스튜디오는 무주군이 문화예술인에게 예술창작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2001년 폐교된 공정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해 활용하고 있는 공간으로, 현재 서예를 비롯한 서양화와 회화, 사진, 캘리, 인형공예, 도예, 연극 분야의 작가 8명이 작업실을 두고 작품 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해마다 이곳에서는 작가들의 개인전을 비롯해 다양한 기획전과 공동전시회 등이 개최되고 있다. 한편, 무주군 무주읍 최북미술관 로비에서는 성인미술교실 9기(3.18.~5.18.) 수강생들의 보타니컬 수채화 작품 20여 점이 전시중으로 6월 30일까지 만나볼 수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 공연장 상주단체 'Maestro B·T·S' 공연

장수군이 전라북도 문화관광재단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Maestro BTS' 공연을 오는 20일 오후 7시 30분에 장수한누리전당 소공연장에서 개최한다.



2023년 공연장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펼쳐지는 이번 공연은, 전라북도 문화관광재단이 주최하고, 장수한누리전당 상주단체인 (사)예술담은나라가 주관하는 공연으로 올해 개최하는 5회 공연 중 처음으로 열리는 공연이다. 2022년 창작 초연장 Maestro B·T·S vs BTS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이번 공연에서는 바흐, 베토벤, 차이코프스키, 슈베르트 등 시대를 초월한 거장들의 다양한 대표곡을 성악가들과 오케스트라의 멋진 라이브 협주로 만나볼 수 있다. 공연은 누구나 선착순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공연 시작 10분 전까지 입장하면 된다. /장수=고관호 기자

안숙선 명창 '신명 나는 풍류여정'

남원시는 제93회 춘향제를 성대하게 마무리하고 여운이 가시지 전 아쉬운 마음을 달아 오는 16일과 23일, 30일 3회 걸쳐 안숙선 명창의 여정에서 신명 나는 풍류여정 공연을 펼친다. 이번 풍류여정은 판소리, 민요는 물론 그동안 볼 수 없었던 난타, 퓨전공연 등으로 국악의 새로운 모습으로, 16일 20시 '아귀' 난타 공연을 시작으로 흥을 돋운 후, 23일은 '안숙선 명창의 여정' 하면 떠오르는 전통 판소리, 가야금 산조 등을 선보이며, 마지막 30일은 또 다른 경험 '이상 실내악' 퓨전 공연으로 마무리할 예정이다. 그동안 퓨전 국악에 관심을 보이며 후배들에게 아낌없는 격려와 응원을 보내온 안숙선 명창은 "새로운 도전으로 국악 발전에 새로운 역사 한 페이지를 장식할 후배들과 우리 음악을 사랑하는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지 못해 아쉽다"며 마음을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한국전통문화전당, 점심버스킹 운영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은 6월, 7월, 11월 3개월간 매주 금요일 야외 특설무대에서 8개 팀이 총 24회로 나눠 점심버스킹 '잠시 쉬 어가도 괜찮아' 공연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예술인지원사업(버스킹)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 행사는 지역의 생활 예술인들을 위한 공간 및 지역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9일 △소노콘에 '오며가며 듣는 런치콘서트' △이동준 '바람의 언덕' 을 시작으로 버스킹 첫 무대를 시작으로 오는 16일에는 △완산구관현악단의 '찾아가는 음악회' △서봉하

모니의 '소통의 장', 23일에는 △소리사랑의 '소리사랑밴드' △우석대학교평생교육원 라인대스팀의 '라인댄스' 공연이 펼쳐진다. 이어 30일에는 △해금앙상블 도담의 '점심의 휴식'과 △버스커 이근호의 '8090여행' 공연이 진행된다. 김도영 원장은 "시민들이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즐기고 향유할 수 있는 힐링의 시간을 제공하고자 버스킹을 운영 중"이라며 "공연 외에도 지역의 생활·예술인들이 어느 때고 무료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버스킹존'을 운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